

서울 중앙도서관, 외부음식 반입금지

이환희 기자 hwanhee515@khu.ac.k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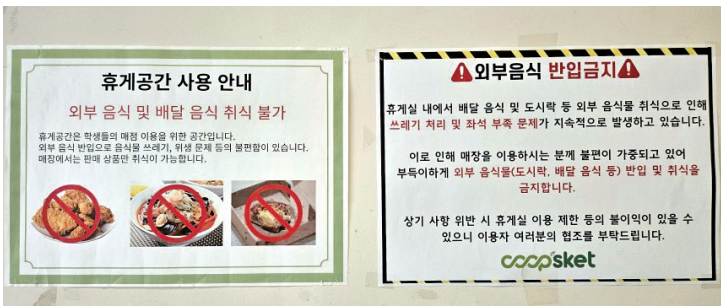
【서울】중앙도서관이 끊이지 않는 쓰레기 문제로 휴게 공간 내 외부음식 반입 금지 조치를 취했다.

지난달 중간고사 기간부터 서울캠 중앙도서관에는 ‘외부음식 반입 금지’라는 안내문이 붙었다. 안내문에는 ‘휴게실 내에서 배달 음식 및 도시락 등 외부 음식물 취식으로 쓰레기 처리 및 좌석 부족 문제 지속적 발생 때문’이라고 적혀있다. ‘위반 시 휴게실 이용 제한 등의 불이익이 있을 수 있다’는 경고성 협조 요청도 있었다.

서울캠 중앙도서관에서 취식이 가능한 곳은 2층 매점 옆 휴게 공간이 유일하다. 이곳에 외부음식 반입을 원하는 학생들이 있지만, 중앙도서관 측은 어쩔 수 없는 조치라는 입장이다.

중앙도서관 김지영 차장은 “코로나19 이후 대면 강의로 전환된 때부터 포장 음식을 가져오기 시작했고, 지난 시험 기간부터는 배달 음식을 시키는 것까지 늘었다”며 “매점 판매 제품이 아닌 외부 쓰레기가 늘어나면서 매점을 운영 중인 생협에서 반입금지를 요청했다”고 말했다.

생협은 쓰레기 관리로 고충을 겪어 왔다. 생협 정광수 판매사업팀장



서울캠 중앙도서관 2층 휴게실에 붙은 외부음식 반입금지 안내문 (사진=이환희 기자)

은 “시험 기간 매점 직원이 쓰레기를 정리한 지 불과 몇 시간 뒤 외부음식 쓰레기가 넘쳐 있었다고 들었다”며 “외부음식을 가져온 학생들 때문에 자리가 없어 매점에서 음식

을 구매한 학생이 곤란해지는 문제도 종종 발생했다”고 말했다. 이에 정 팀장은 “학생 편의를 위해 외부음식 반입을 감수하고 있었지만, 최근 이러한 취치가 무색해질 정도로

문제가 많아져 반입금지 결정을 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학생 측은 외부음식을 가져가지 못하게 된 것에 더해 도서관 내 취식 공간이 부족하다는 것도 불만이다.

이연서(사학 2022) 씨는 “중앙도서관 매점은 판매하는 음식 종류가 비교적 적어서 매번 매점 음식으로만 식사하려니 힘들고, 식사 시간에는 공간이 부족하다”고 말했다.

이에 김 차장은 “도서관 내 취식 공간 부족 문제를 인지하고 있다”며 “학습 공간도 부족한 상황이지만, 휴게 공간을 늘리기 위해 고민을 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서울 잡페스티벌 성료 인사 멘토 대폭 증가

추찬호 기자 changlon1212@khu.ac.kr

【서울】지난 10일 청운관에서 작년 대비 늘어난 멘토와 함께 ‘잡페스티벌(Job Festival)’이 열렸다.

이번 행사는 ▲현직자 강의 ▲동문 특강 ▲직무별 1:1 직업상담으로 구성됐다. 직무별 직업상담에서는 ▲인사 ▲기획/전략/MD ▲경영지원/회계/세무 ▲이공계 ▲전문직/특수직 ▲공공기관/금융 ▲영업 ▲홍보/마케팅 분야의 멘토가 참여했다.

작년 대비 늘어난 멘토가 이번 잡

페스티벌의 특징이다. 작년 대비 11명이 증가했다. 특히 기존 학생 수요가 많았던 ‘HR(인사) 분야’ 멘토 비율이 증가했다. 6년 동안 경희멘토단 단장을 맡아온 박종명 미래인재센터 겸임교수는 “10명 이상의 인사 직무 종사자를 모셨다”며 “학생들이 특히 인사 분야 멘토링을 필요로 해 집중적으로 늘렸다”고 말했다.

이날 여러 기업에서 참가한 멘토는 상담으로 취업준비생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정보를 제공했다. 현대자동차에서 설계 직무를 맡고 있는 최종태(기계공학 2017) 동



직무별 1:1 직업상담에서 멘토와 멘티가 직업에 대한 고민을 나누고 있다.

(사진=추찬호 기자)

문은 멘티 상담에서 “면접관의 시선에서 학부생 출신에게 전문지식이나 대단한 걸 기대하진 않는다”며 “배우려는 의지와 오버하지 않는 열정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또 마케팅 분야에 종사하는 박수환(미디어학 2015) 동문은 멘티에게 “마케팅 분야는 특히 자신의 경험과 관련한 어필이 필요하다”며

“마케팅 분야를 준비한다면 공모전 수상이나 포트폴리오 작성을 꾸준히 쌓아나가며 실력을 키우는 것이 좋다”고 조언했다.

멘티로 참가한 이주은(정치외교학 2021) 씨는 “주변에서 취업 관련 해 얻을 수 있는 정보가 별로 없는 상황이었는데, 이번 멘토링이 큰 도움이 됐다”며 “특히 면접 관련 조언

이나 자기소개서 작성 시 강조해야 할 점을 잘 알려주셔서 좋았다”고 말했다.

박 교수는 향후 개선점에 “서울캠에는 이공계가 이학 계열과 정보디스플레이학과 정도만 있어 멘토 수가 상대적으로 적다”며 “서울캠에서도 이공계 멘토를 향후 확충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융복합 프로젝트 활용 수업과 사례

-강사: 전문성 교수(경인교대)

-신청 기간: 2025.05.13.(화) - 2025. 06.02(월)

-신청 방법: e-Campus 로그인 -> 비정규 강좌 -> 교수법 -> [2025-1]5차 교수법 특강

-내용

1. 교수 학습의 4요소 2. 교수자와 학습자의 공감 방법 3. 시대의 대세: 문제해결학습 4. 융복합 프로젝트의 활용 및 사례

-수강 방법

: e-Campus 로그인 -> 내 강의실 바로가기 -> Learning -> [2025-1]5차 교수법 특강